



응원복까지 단채로 맞춰 입은 타이거즈 클럽 회원들이 '2009 한국시리즈' 제 1차전이 열린 지난 16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경기 열리면 어디라도 달려간다” 뒀다! 타이거즈 클럽

“KIA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면 서울·부산·인천·광주 어디라도 달려간다. 우리는 자타공인 열혈 KIA 타이거즈 야구팬 클럽”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 등 출신지 역과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고 KIA를 응원하는 열혈 팬들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바로 ‘타이거즈 클럽’.

200개나 준비했다. 경기 시작 5시간 전인 오후 1시 현재 야구장에 모습을 드러낸 ‘타이거즈 클럽’ 회원은 30여명. 지난 16일 군 제대 후 1차전부터 계속 경기를 관람한 서명석(23·광주시 북구)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면 서울·부산·인천·광주 어디라도 달려간다. 우리는 자타공인 열혈 KIA 타이거즈 야구팬 클럽”

200개나 준비했다. 경기 시작 5시간 전인 오후 1시 현재 야구장에 모습을 드러낸 ‘타이거즈 클럽’ 회원은 30여명. 지난 16일 군 제대 후 1차전부터 계속 경기를 관람한 서명석(23·광주시 북구)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면 서울·부산·인천·광주 어디라도 달려간다. 우리는 자타공인 열혈 KIA 타이거즈 야구팬 클럽”

200개나 준비했다. 경기 시작 5시간 전인 오후 1시 현재 야구장에 모습을 드러낸 ‘타이거즈 클럽’ 회원은 30여명. 지난 16일 군 제대 후 1차전부터 계속 경기를 관람한 서명석(23·광주시 북구)은 “KIA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면 서울·부산·인천·광주 어디라도 달려간다. 우리는 자타공인 열혈 KIA 타이거즈 야구팬 클럽”

전국구 회원들 오프라인 400명·온라인 5천명

한국시리즈 대거 원정 응원 “KIA 없인 못살아”

신안동)씨를 포함해 광주·전남에서 인천문학구장까지 원정응원을 온 클럽 회원은 10명 안팎이었다. 서씨는 “플레이오프 5차전이 하루 밀리면서 한국시리즈 1차전도 하루 연기돼 온 좋게 3차전까지 관

다들 알짜값이 경기장 3루쪽 관람석 입구에 자리를 잡고, KIA 타이거즈 응원석에 자리를 잡는 법부터 눈에 띄는 응원전략 등에 대해 계획을 짜고 있었다. 클럽 부회장 고경준(30·경기도 부천시)씨는 “3루

한국시리즈 통산 아홉 차례 우승에 빛나는 KIA의 역사와 팬들의 활동 등을 소개한 이 홈페이지 운영자는 각 선수별 게시판을 만들어 선수단과 활발한 교류는 물론 야구 이야기 등을 소개, 팬들에게 야구의 기쁨을 나눌 공간을 마련했다. 이 홈페이지 개설자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며 “통산 9번 우승에 빛나는 각종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과거 KIA의 영화를 기억하는 많은 팬의 향수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tee@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모든 것 있어요”

팬들 응원 사이트 ‘호랑이 섬’ 개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팬들이 선수단 응원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KIA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호랑이 섬’(www.tigersum.com)에 따르면 KIA 타이거즈 팬들은 최근 KIA의 역사·응원 구호·야구 이야기·섬호랑이·야구 중계 등이 담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원정 응원은 물론 선수단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

다. 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KIA의 로고와 선수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과 팬들의 야구 관람 후기, 선수들에게 바라는 점 등이 실려 있다. 구단이 아닌 팬들이 대대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열고 적극적으로 응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재 이 홈페이지에 팬으로 등록된 사람만 1만여 명에 달한다. /이종형 기자 gotee@kwangju.co.kr

한국시리즈 통산 아홉 차례 우승에 빛나는 KIA의 역사와 팬들의 활동 등을 소개한 이 홈페이지 운영자는 각 선수별 게시판을 만들어 선수단과 활발한 교류는 물론 야구 이야기 등을 소개, 팬들에게 야구의 기쁨을 나눌 공간을 마련했다. 이 홈페이지 개설자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며 “통산 9번 우승에 빛나는 각종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과거 KIA의 영화를 기억하는 많은 팬의 향수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tee@kwangju.co.kr

학생수 감소·채용 급감

교사 되기 힘들다

학생수 감소로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도 크게 줄어 올해 임용 경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사(유치원, 특수교사 등 포함) 모집인원은 총 4천960명으로 지난해(5천868명)에 비해 1천명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다 내년도 초등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퇴직자 수도 예년보다 적어 시도별 임용 폭이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해 1천144명에서 올해 876명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경북 528명→285명, 경남 541명→319명, 전남 510명→312명, 전북 466명→312명, 대구 339명→113명, 충남 425명→366명, 광주 227명→213명 등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도 2004학년도 1.20대 1, 2005학년도 1.35대 1, 2006학년도 1.37대 1, 지난해 1.9대 1 등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다.

한편 16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취업난 등을 반영하듯 수험생들이 대거 몰려 시·도별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치솟았다. 광주 43.1대 1을 비롯해 전남 26.9대 1, 서울 41.2대 1 등으로 대부분 수험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시 2차 합격자

1,009명 발표

전남대 26명·지방대 2위

법무부는 20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천9명을 확정·발표했다.

전남대학교 출신 합격자 수는 26명으로 부산대 28명에 이어 지방대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174명, 연세대 119명, 한양대 69명, 성균관대 68명, 이화여대 54명, 경북대 21명 등이었다.

합격 최저점은 358.70점이며 남성 653명(64.7%), 여성 356명(35.3%)이 합격해 여성합격률이 작년보다 2.9%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3차 시험은 다음달 17~20일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27일 발표된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3분 해질 17시 50분 달돋이 09시 46분 달질 19시 33분

높고 푸른 하늘 대체로 맑겠으며 산간지방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지역	기온	날씨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울	10/22℃	흐린뒤 맑음	0.5~1.5m	보통	주의
부산	14/19℃	흐린뒤 맑음	0.5~1.0m	보통	주의
대구	12/21℃	구름 조금	0.5~1.0m	보통	주의
전주	8/22℃	구름 조금	0.5~1.0m	보통	주의
광주	10/21℃	구름 조금	0.5~1.0m	보통	주의
목포	9/22℃	구름 조금	0.5~1.0m	보통	주의
제주도	10/21℃	구름 조금	0.5~1.0m	보통	주의

지역	기온	날씨	일몰	일출
서울	0.5~1.5m	서~북서	03:30	08:41
부산	0.5~1.0m	서~북서	16:15	21:19
대구	0.5~1.0m	서~북서	10:43	04:01
전주	0.5~1.0m	서~북서	22:30	16:44

영광원전 4호기 가동 중지 요청

안전감시센터, 안전성 검증까지...핵연료 사용 중지도

한국표준형원전인 영광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핵연료봉 파손과 열전달 안전판 이탈과 관련, 민간감시기구인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는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영광원전 4호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한국형 핵연료인 PLUS-7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를 강력 요청기로 했다.

한 2차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또 핵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 안전판 이탈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4호기 이탈부위 위치 확인 및 파손부위 수거 전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할 것과 열전달 안전판 이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형 핵연료인 PLUS-7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 원전측은 “결함이 있는 핵연료봉 1개는 내부의 스프링과 상단 부위에 파손돼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조각난 부분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핵연료봉 파손에 대한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가동을 계속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로 인

한 2차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또 핵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 안전판 이탈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 대학로 605-1114 / 대학로 605-1115

건물의 수명 가치 UP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강재철이도 확실히 새틴크루서!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0 (동천동) 1111호
 대표: 062-2511-0444

인디안 아울렛
새단장 OPEN
광주주월점
70~50%
정상·상설복합 매장
주월동 빅마트 옆
 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062)654-7205